교회-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2 부)

슬라이드 1	##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사도행전에서 탄생하던 교회,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이 어떠했는지 들어봅시다.
슬라이드 2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던 사도들의 가르침에 모두가 매우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서로 하나되어 있었고, 형제처럼 살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로 도왔고, 기도하고 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자주 만났다. 모든 믿는 신자들은 함께 했고, 각자가 지닌 모든 것을 공동의 것으로 나누었다. 매일 기쁨과 단순한 마음으로 함께 먹으며 그들의 집에서 서로 만남을 가졌다. 그들은 하느님을 찬미하였고, 그들의 공동체는 성장하였다." (*사도행전 2 장)
슬라이드 3	"신자가 된 사람들은 매우 많아졌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영혼이었다. 사도들은 아주 큰 힘으로 주님이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왜냐하면 땅과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 발 앞에 놓았고, 이 돈은 각자가 가진 필요에 따라 나누어졌기 때문이다. 아무도 각 자의 재산을 그의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은 공동의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 장)
슬라이드 4	## 예수님의 말씀을 생활함 초기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실천에 옳기던 사도들의 가르침에 모두 주위 깊에 귀를 기울였다."
슬라이드 5	이 사도들은 누구이며, 몇 명이었지요? 그들의 이름 몇몇을 기억하나요? *(만일 우리가 많은 수의 인원이라면 작은 그룹으로 모여서 각자가 대답할 수 있도록 하고, 몇 분 후에 원하는 사람이 그룹 안에서 나눌 수 있도록 한다.)* 사도들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항상 그분과 함께 있었고, 어디든지 그분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 분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분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세계 어디든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12 명이었지요.
슬라이드 6	그들 가운데는 4 형제가 있었지요. 안드레아는 베드로라고 불리던 시몬의 의 형제였고,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였지요. 그리고 필립보와 바르톨로매오, 토마, 세리였던 마태오, 유다 이스 가리옷, 열혈당원이었던 시몬, 야고보와 타대오지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과 일치되어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동반자들이었으며, 교회의 진정한 기둥들이었기 때문이예요.
슬라이드 7	오늘날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 다른 교회들 안에서 사도들의 후계자들이 누군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주교님들이시지요.
슬라이드 8	교황님께서는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가 죽은 도시, 바로 로마의 주교님이세요. 여러분들은 현재 교황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슬라이드 9	우리도 오늘날 초기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우리 교회안의 책임자들에게 일치되어 있기를 바라지요. '우리 교회들' 이라고 말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치하여 남아 있지 않지요. 우리는 서로 다른 교회들로 나뉘어져 있지요. 그렇지만 몇년 전

	부터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서로 일치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슬라이드 10	**결국 교회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제자들의 공동체 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빋으며,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이예요.
슬라이드 11	그들은 서로 사랑하였다.
슬라이드 12	자주 사람들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투지요. 세상에는 많은 다툼과 시기, 충돌, 전쟁까지도 벌어지지요.
슬라이드 13	어떻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일치되어 사도행전에서 “한 마음, 한 영혼이었다”고 까지 읽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3 젠들도 많은 경우에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인 인상을 갖게 되는 걸까요?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경험과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가능한시간을 준다.)
슬라이드 14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의’ ‘새로운’ 계명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치되어 있었습니다. 계명은 모든 것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즉 “서로 사랑하라” 는 것이었습니다.
슬라이드 15	아름다운 것은 우리 역시도 이 사랑을 살 수 있고, 이 강한 일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많은 평화와 기쁨, 열정을 느끼지요. 이 서로간의 사랑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에 계시지요.
슬라이드 16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그 분의 현존에서 오는 결실을 느낄 수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실 때, 항상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슬라이드 17	**결국 교회는 무엇인가요?** 예수님 제자들의 공동체 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